

단종 제향 복원을 위한 재관(齋官) 복식 고증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A Study on the Historical Research on the Costume of Memorial Service Officials at *Yeongwol* King *Danjong* Cultural Festival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ontent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2. 8. 23, 심사(수정)일: 2012. 10. 30, 게재확정일: 2012. 11. 5)

ABSTRACT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ostume of memorial service officials during the period of late 18th century, King *Jeongjo* period, is performed for an accurate reconstruction of the memorial service for King *Danjong*, which is a part of King *Danjong* Cultural Festival held at *Yeongwol*.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follows: 1. *Jangneung* memorial service is held only on *Hansik* day and the procedure follows the rule based on *Gukjooryeu*(國朝五禮儀). The service was first held in 1791 for King *Danjong* and his royal followers. 2. The rule based on *Chunkwantonggo*(春官通考), defines the king's tomb memorial services and attendees. King *Danjong*'s memorial service follows the rule regarding its attendees and the attendees include high-ranki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confucian scholars, and service men. 3. The costume of attendees for the King *Danjong*'s memorial service is as follows: 1) *Dangsangkwan*(堂上官) and *Danghakwan*(堂下官) wear *Sangbok*(常服), which consisted of *Samo*(紗帽), *Heukdanllyeong*(黑團領), *Pumdac*(品帶), and black boots(黑靴). 2) Local confucian scholars wear their uniform consisting of *Yukcon*(儒巾), *Dopo*(道袍), *Sejodae*(細條帶), and black boots. 3) Service men wear their uniform consisting of *Jeonjakcon*(典字巾), red-robe with rounded collar called *Hongui*(紅衣), *Kwangdawhoe*(廣多繪), and *Uhae*(雲鞋).

Key words: costume for memorial service(제복), Danjong Cultural Festival(단종문화제), historical research on costume(복식고증), Jangneung(장릉), memorial service held on Hansik day(한식제), Yeongwol(영월)

I. 머리말

1967년 '단종제(端宗祭)'란 명칭으로 시작된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는 1990년 제24회 때부터 '단종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어 매년 4월 5일 한식을 전후하여 3일 동안 시행되어 왔다. 2007년부터는 문화제 일정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3일간의 행사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단종의 장릉(莊陵)에 지내는 한식제(寒食祭)를 비롯하여 단종대왕 굿, 짚줄다리기 등의 실시로 행사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성장하였다.

영월읍 영흥리 산 1087번지에 위치한 장릉은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9년 장릉은 조선왕릉 40기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장릉 한식제는 1516년(중종 11) 중종이 노산군(魯山君) 묘에 치제하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 숙종 때 노산군이 복위됨에 따라 노산군 묘에서 장릉으로 승격되었고 왕릉에 맞는 조성물들이 들어섰다. 단종 제향은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해 총절과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配食壇)이 지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배식단과 배식단에 모셔진 충신들을 위한 제향은 다른 왕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릉 제향만의 특징이다. 2010년 단종 제향이 지방무형문화재로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장릉의 역사와 제례, 제례 복식에 대한 조사¹⁾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었던 단종 제향의 재관²⁾ 복식 고증 결과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단종문화제의 일환으로 거행되고 있는 장릉 한식제 복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 국가 전례서(典禮書)와 실록, 『장릉사보(莊陵史補)』 등에 나타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단종 제례의 역사와 의식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장릉 한식제의 기반이 완성된 18세기 후반 정조대를 기준 시점으로 잡고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를 참고하여 장릉 제례에 참여하는 재관의 복식을 고증하고자 한다.

II. 단종 제향의 역사 및 제례 절차

1. 단종 제향의 역사³⁾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재위 1453-1455)은 재위 3년 만에 숙부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에게 선위하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채, 2년 뒤인 1457년에 영월에서 죽임을 당하고 폐서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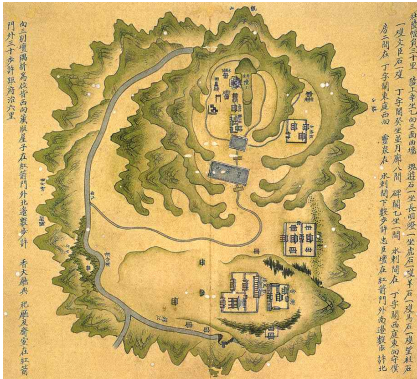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1516년(중종 11), 노산군의 묘소에 대한 치제(致祭) 절목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사명일(四名日: 설, 단오, 추석, 동지)에 제사를 지내고, 그 준비는 묘가 있는 곳의 수령이 하도록 하였다. 또 제물은 왕후의 부모에게 치제하는 예를 따르고, 묘지기는 6명을 두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우승지 신상(申鎋)을 보내 노산군 묘에 처음으로 치제하게 하였다.⁴⁾

1574년(선조 7) 4월에 산릉 수호군을 보충하고 묘소를 보수하였다. 1581년(선조 14)에는 강원감사 정철(鄭澈)의 장계(狀啓)로 황폐한 묘역을 수축하고 재실(齋室)과 제청(祭廳)을 세운 다음, 상석과 표석, 망주석과 문무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다.⁵⁾ 1585년(선조 18)에는 감사 영월군수 김록이 감사 정군수에게 청하여 제청 3칸과 재실, 부엌간을 묘 옆에 지었다. 1603년(선조 36)에는 묘 가까이 사는 사람 서너명을 묘 수호군으로 삼고 신역을 면제하여 묘 수호에 전념토록 하였다.⁶⁾

광해군 2년(1610) 7월 예조판서 이정구(李廷龜)의 건의에 의해 묘 옆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단종과 단종비 송씨의 신주를 봉안하였다. 조정에서는 매년 사명일과 기일(忌日)에 향축을 보내어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거행하도록 하고 참봉 2명과 수호군 6명을 두어 교대로 수직토록 하였다.⁷⁾

1698년(숙종 24)에는 노산군이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왕으로 복위되었으며 그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은 장릉(莊陵)이라는 능호를 지니게 되었다. 『월중도(越中圖)』에 실린 <장릉전도(莊陵全圖)>는 <그림 1>⁸⁾과 같다.

1791년(정조 15) 장릉의 능역에 단종에게 총절을



<그림 1> <越中圖>의 莊陵全圖
- 藏書閣 名品選, p. 176.



<그림 2> 2012년 단종 제향 장면
- <http://cafe.daum.net>

다한 신하들의 이름을 적은 사판을 봉안한 배식단 설치와 함께 각종 조성물이 들어섰다. 장릉에서의 단종 제례와 배식단 제례는 같은 날 함께 지내는 종묘대제(大祭)와 공신당 제사와 같은 성격이었다. 배식단의 구조는 정단(正壇)인 충신단(忠臣壇)과 별단(別壇)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단 배식인은 32인이고 별단 배식인은 조사단(朝士), 산원(散員)·환관(宦官)·맹인(盲人)·군노(軍奴), 여인(女人) 등, 23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단종 제례를 지낼 때 그들에 대한 제사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에도 두 제향이 유지되었으며 현제에도 영월군 유림과 정선, 평창, 충북, 경북 지역의 유림까지 참여하는 제례로 존재하고 있다<그림 2>¹⁰⁾.

2. 단종 제향의 시기와 의식 절차

1) 단종 제향의 시기

왕릉에 제사지내는 의주(儀註)는 1475년(성종 6)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¹¹⁾에 수록된 '사시(四時) 및 속절(俗節), 삭망(朔望) 때 모든 왕릉에 향사하는 의식[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에 실려 있다. 산릉 제사 시일(時日)은 삭망 속절【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臘)】 때 제사한다¹²⁾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종묘(宗廟)에 모셔진 왕과 왕후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원칙이었다. 종묘가 아닌, 영녕전

(永寧殿)에 모셔진 왕과 왕후는 한식(寒食)에만 제사를 지낸다¹³⁾는 원칙이 있었다. 기일(忌日)에 지내는 기제사[忌辰祭]도 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절 중에서도 한식에만 제사를 지냈다.

단종은 승하할 당시 '군(君)'의 지위였고 숙종대에 이르러 '국왕'으로 복위되었다. 국왕으로 복위되었으므로 국가 사당에 봉안해야 하는데, 불천지주(不遷之主)가 될 수 없었기에 종묘 정전이 아닌, 영녕전에 모셔졌다. 때문에 단종은 한식 때 제사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장릉 제향인 단종 제례는 한식 때 치러졌던 것이므로, 지금의 '장릉 한식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제의 일환으로 제향이 시행되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따뜻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4월 마지막 주 주말로 바뀌게 되었다. 날짜의 변경은 장릉의 제사 날짜를 변경하겠다는 고유제(告由祭)를 지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2) 단종 제향의 의식 절차

단종 제향을 전통 기반의 향토문화제로 진행한다고 할 때, 재현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배식단을 포함한 장릉의 조성물이나 제향이 완성된 시기는 1791년이다. 따라서 정조 때의 전례서인 『춘관통고』를 참조하여 18세기 후기 단종 제향의 의절을 갖출 수 있다.

『춘관통고』에 실린 제사의 등급과 제사 시기, 제관, 제복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사의 등급 구분[辨祀]과 제사지내는 시기[時日]는 후릉(厚陵)¹⁴⁾과 같다. 후릉의 변사 시일은 모두 건원릉과 같으나 한식(寒食)에만 제향하고 삭망(朔望)에 분향례(焚香禮)를 행한다.¹⁵⁾ …(중략)… 축관(祝版)과 재계(齋戒), 향축(香祝), 그리고 재관(齋官)도 건원릉과 같다. 건원릉의 재관은 헌관(二品), 전사관(典祀官, 奉常寺正), 능사(陵司, 參奉兼行執事), 대축(大祝, 參外), 찬자(贊者, 參外), 알자(謁者, 參外), 감찰(監察)이다. 제복(祭服)은 건원릉과 같다. 섭행 기신제에 재관들은 천담복(淺淡服)에 오사모, 오각대(烏角帶), 백화(白靴)를 신고 오질향에는 오사모(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흑화(黑靴)를 착용한다.¹⁶⁾

『춘관통고』에 실린 의주에 따른 의식 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 진설(陳設)

제사지내기 하루 전, 능사(陵司)는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침(陵寢)의 안과 밖을 청소한다. 찬자는 헌관의 자리[位]를 능침의 계단 아래 동남쪽에 서향으로, 모든 집사(執事)의 자리를 헌관의 뒤 약간 남쪽에, 찬자와 알자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모두 서향으로 하되 북쪽을 윗 자리로[北上], 감찰의 자리를 집사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제삿날 당일 행사하기 전, 능사는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침의 안과 밖을 청소하고, 신좌(神座)를 능침의 북쪽 호(戶)의 안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전사관과 능사는 각각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축관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들어서 올리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을 촛대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으로 제기(祭器)를 법식대로 진설한다【위에 보인다】.

○ 陳設 前享一日 陵司帥其屬 掃除陵寢內外 贊者設獻官位於陵寢階下東南西向 諸執事位於獻官之後稍南 贊者謁者位於執事之南 俱西向北上 監察位於執事東南西向 享日未行事前 陵司帥其屬 掃除陵寢內外 設神座於陵寢北戶內南向 典祀官陵司 各帥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盒並燭於神位前 次設祭器如式【見上】

○ 행례(行禮)

제삿날 당일 축시 5각 전【축시 5각 전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에 전사관과 능사가 들어가 제기에 음식을 담고 갖추기를 마친다.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한다【삭망에는 그렇지 않다】. 3각 전에, 모든 향관은 각자의 복장[其服]을 갖추고 모두 능침의 남쪽으로 나아간다. 찬자와 알자는 먼저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拜位]로 들어가서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윗 자리로 하여 사배(四拜)를 한다. 마치면, 제 자리로 나아간다[就位].

1각 전에, 모든 향관이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마치면,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제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가 계단 사이의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윗 자리로 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라고 말하면,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제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집사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간다[就位]. 찬자가 “사배”라고 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찬(饌)을 올리고 마친다.

○ 行禮 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典祀官陵司 入實饌具畢 謁者引監察 陞自東階 點視陳設【朔望則否】 前三刻 諸享官各服其服 俱就陵寢之南 贊者謁者 先入階間拜位 北向西上四拜 訖就位 前一刻 諸享官監輓 訖謁者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 入就階間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贊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 訖謁者引監察 就位 諸執事各就位 謁者引獻官 入就位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典祀官陵司 進膳訖

○ 초헌(初獻)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罽]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알자는 (헌관이) 꿇어 앉아 흘(笏)을 띠에 꽂는 것을 돕는다.¹⁸⁾ 집사자 1인이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고 무릎을 꿇고 올린다. 알자가 세 번 향을 올리는 것을 돕는다. 집사자

가 향로를 안(案)에 올린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 (헌관이) 작을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신위 앞에 올린다 【향을 받들고 작을 주는 것 [捧香授爵]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고, 향로를 올리고 작을 올리는 것[奠爐奠爵]은 서쪽에서 동향으로 한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으로 꿇어앉은 것을 돕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는 것을 돕고, 인도하여 내려서 제 자리로 돌아온다.

- 初獻 贊者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 陞自東階 詣尊所 西上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謁者贊跪搢笏 執事者一人捧香盒 一人捧香爐 跪進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捧香授爵 在東西向 奠爐奠爵 在西南向】 贊執笏俯伏興少退北向跪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 訖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

○ 아헌(亞獻)

찬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가 먹(罍)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알자가 헌관이) 꿇어 앉아 홀을 띠에 꽂은 것을 돕는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 (헌관이) 작을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신위 앞에 올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는 것을 돕고, 인도하여 내려서 제 자리로 돌아온다.

- 亞獻 贊者曰行亞獻禮 謁者引獻官 詣尊所 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降復位

○ 종헌(終獻)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모두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서 제 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라고 말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절하는 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라고 말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와 알자가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각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둔다. 대축이 축관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묻는다.

- 終獻 贊曰行終獻禮 謁者引獻官 行禮並如亞獻儀 訖 引降復位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出 謁者引監察及諸執事 俱復拜位 贊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 訖 謁者引出 贊者謁者 就拜位 四拜而出 典祀官陵司 各帥其屬 徹禮饌 大祝取祝版 瘞於坎

3) 장릉 배식단 제례의 의식절차

배식단의 제례 절차는 『장릉사보』에 실려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능에서 제향을 지내기 전, 알자가 단소(壇所)의 헌관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신실로 나아간다. 헌관 이하가 모두 재배(再拜)한다. 대축·단사·축사·재랑이 각자 신위를 받들고 나와서 단소로 나아간다. 능향(陵享)과 동시에 진설(陳設)한다.

알자가 헌관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정자각(丁字閣) 앞뜰의 절하는 자리[拜位]로 나아가 능향관(陵享官)과 함께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대축 이하가 먼저 단소의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각자의 자리[位]로 나아간다.

능향(陵享) 초헌(初獻)을 마치면, 알자(謁者)가 헌관을 인도하여 단소(壇所)의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고, 준소(尊所)로 나아가고, 충신단(忠臣壇)의 신위(神位) 앞에 가서 선다. 세 번 향을 올리고, 작(爵)을 잡고 작을 올린다. 축문을 읽는다.

다음으로 조사단(朝士壇)의 신위 앞에 가서 선다.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 다음으로 동별단(東別壇)의 신위 앞에 가서 선다.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 다음으로 서별단(西別壇)의 신위 앞에 가서 선다. 작을 잡고 작을 올린다.

알자가 헌관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정자각 앞 뜰 배위에 나아가 능향관과 함께 사배례를 행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간다. 대축이 지방(紙勝) 및 축문(祝文)을 받들고 간다. 사의(司儀)가 “태운다[可燎]”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 및 제집사를 인도하여 신위를 신실로 봉환(奉還)한다. 헌관 이하가 (神室에) 재배하고 나온다.

- 陵享行事前 謁者引壇所獻官及諸執事 詣神室 獻官以下皆再拜 大祝壇司祝史齋郎 各奉神位 出詣壇所 陵享同時陳設 謁者引獻官及諸執事 詣丁字閣前庭拜位 與陵享官 同行四拜禮 大祝以下 先詣壇所盥洗位 各就位 陵享初獻 訖 謁者引獻官詣壇所盥洗位 引詣尊所 引詣忠臣壇神位前立 三上香 執爵奠爵 讀祝 次詣朝士壇神位前立 執爵奠爵 次詣東別壇神位前立 執爵奠爵 次詣西別壇神位前立 執爵奠爵 謁者引獻官及諸執事 還詣丁

字閣前庭拜位 與陵享官 同行四拜禮 謁者引獻官詣望燎位 大祝奉紙勝及祝文以行 司儀曰可燎 謁者引獻官及諸執事 奉還神位于神室 獻官以下再拜出.

Ⅲ. 단종 제향의 재관 복식

1. 단종 제향 재관

『춘관통고』에 의하면 단종 제향의 재관[齋官]은 건원릉의 재관과 같았음²⁰⁾을 알 수 있다. 정조대 당시, 재관은 헌관(당상 정3품이나 종2품, 종친과 의빈은 품질에 관계없음)과 전사관(典祀官, 참상 혹은 참외)²¹⁾, 대축(大祝, 참상 혹은 참외), 능사(陵司, 參奉兼行執事, 종9품)²²⁾, 찬자(贊者, 참외, 7-9품), 알자(謁者, 참외, 7-9품), 찬인(贊引, 참외), 감찰(監察)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멀리 있는 능의 제사에는 감찰이 없으며 또 절사(節祀)에는 전사관이 대축을 겸한다고 하였다.

『국조오례서례』와 『춘관통고』, 『장릉사보』에 근거하여 장릉의 한식 속절 제사에 참여하는 재관들의

<표 1> 장릉 한식제 재관 구성과 역할

齋官		莊陵史補		역할
國朝五禮序例 · 春官通考				
獻官	종2품-정3품	관찰사(정3품) 영월군수(종4품) 현령(종5품) 찰방(종6품) 등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장능 헌관은 관찰사가 맡고 배식단 헌관은 영월군수가 행함)
典祀官	참상/참외 정3-종6품	參班		축관, 향로, 향합 설치, 음식 진설
大祝(參外)	정7-종9품 전사관이 대축 겸함			
陵司(參奉兼行執事)	종9품	參班		능 관리, 제사 때는 집사 역할
贊者(參外)	참외관(정7-종9품)	參班 혹은 鄉校 彰節祠 齋儒		제사 의식 진행
謁者(參外)	참외관(정7-종9품)	參班 혹은 鄉校 彰節祠 齋儒		재관을 인도하는 역할
贊引(參外)	참외관(정7-종9품)	參班 혹은 鄉校 彰節祠 齋儒		제사 절차대로 인도하는 역할
監察	정6품	-		제례 준비와 행례에 대한 감찰(遠陵에는 없음)
-	-	鄉校 彰節祠 齋儒		壇司, 祝史, 齋郎. 충절사 유생이 配食壇 집사 역할

품계와 담당 업무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1784년(정조 8), 능침 헌관은 기신제나 절일제를 막론하고 60세 이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규례로 삼으면서, 음관으로 도정(都正, 정3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자나 무관으로 일찍이 아장(亞將, 종2품)이나 무장(武將), 승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자로 하도록²³⁾ 하였다.

또한 『장릉사보』 배식단사목(配食壇事目)에는 '금년(1791)의 단향(壇享)은 도신(道臣:관찰사)이 헌관이 되고, 참반(參班)한 사람들이 집사(執事)가 되지만 이후로는 수령(守令)과 찰방(察訪)이 헌관이 되고, 향교(鄕校) 창절사(彰節祠)의 재유(齋儒)가 제집사가 된다고 하였다. 또 도신이 봉심(奉審)하는 것이 한식(寒食)과 겹치면 도신(道臣, 관찰사)은 능헌관(陵獻官), 본관(本官, 영월군수)은 단헌관(壇獻官)이 된다고 하였다.'²⁴⁾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1791년 장릉 한식제에는 관찰사가 능헌관을 맡고 영월군수가 단헌관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반의 당하관급 헌관들과 대축(전사관 겸합)과 능사, 찬자, 알자 등이 참여하는 조출한 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배식단사목의 제례의식 절차에 따르면 충절사의 유생들이 담당하는 단사(壇司), 축사(祝史), 재랑(齋郎) 등의 집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장릉의 잡역군인 수복(守僕)²⁵⁾도 참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릉에는 2칸의 수복방(守僕房)이 정자각(丁字閣)의 동쪽 뜰에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²⁶⁾

2. 단종 제향 재관의 제복

정조대의 『춘관통고』에 따르면 산릉 섭행 때, 재관은 건원릉의 재관과 마찬가지로 제복(祭服)을 착용한다²⁷⁾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제복이 제관(祭冠)과 청초삼(靑綃衫)으로 구성된 제복이 아니라 접에서 주목된다.

『춘관통고』에 의하면 건원릉의 재관이 착용하는 제복이라는 복장은 기신제(忌辰祭)에 재관이 입는 것과 오절향(五節享)에 착용하는 것이 각기 달랐다. 섭행 기신제에 재관들은 천담복(淺淡服)에 오사모(烏角帶), 백화(白靴)를 신었던 반면에, 오절

향에는 오사모(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흑화(黑靴)를 착용하였다.²⁸⁾

현재 영월군에서 행하고 있는 장릉의 한식제는 속절²⁹⁾ 오절향 제사에 해당되므로 재관들은 사모에 흑단령, 품대, 흑화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식단 제사에는 사모와 흑단령 차림의 영월군수(종4품)나 부근의 찰방(察訪, 종6품), 혹은 수령(守令, 종6품)이 헌관을 맡고 집사는 참반(參班, 당하관)이나 향교의 재유(齋儒)가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릉의 배식단 제향이 시작된 1791년을 고증 시점으로 하여, 제향에 참여하는 관찰사(정3품), 영월군수(종4품), 현령(종5품)³⁰⁾, 찰방(종6품), 대축(전사관) 등의 집사 참반(당하관)과 배식단 집사 역할을 맡는 향교 유생들, 능제와 배식단제와 관련하여 잡역을 담당하였던 수복방 소속의 수복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헌관(당상·당하관)과 참반(당하관) 집사, 유생 집사, 수복의 제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능제와 배식단 제사에 참여하는 당상·당하관 상복(常服)

『춘관통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능제와 배식단 제사에 참여하는 당상관과 당하관에 해당하는 헌관, 즉 관찰사(정3품)와 영월군수(종4품), 현령(종5품), 찰방(종6품) 등은 제복으로 상복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1790년대 당시의 상복, 즉 사모와 흑단령, 품대, 흑화를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모

사모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2단의 모부(帽部)를 지닌 관모이다. 모부의 뒤쪽 중심에는 수평형의 뿔을 꽂는다. 1746년의 『속대전(續大典)』은 품계에 따라 사모뿔 무늬에 차등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즉 당상 3품 이상은 사모뿔에 무늬가 있는 문사각(紋紗角) 사모를 쓰고 당하 3품 이하는 무늬가 없는 단사각(單紗角) 사모를 사용하였다.³¹⁾

사모는 시대에 따라 모부의 형태나 뿔의 형태 등에 차이를 보였는데 <그림 3>³²⁾은 1792년에 그려진 서매수(徐邁修, 1731-1818) 초상화의 사모 부분이다. 사모는 비교적 높이가 높은 편이고 정수리는 좌우로 약간



〈그림 3〉 당상관용 사모(서매수 초상화, 1792)
- 조선시대의 초상화 II, p. 135.



〈그림 4〉 당하관용 사모(정일태 초상화, 18세기)
- 조선시대의 초상화 II, p. 189.



〈그림 5〉 정3품용 유각 옥관자
- 조선시대의 초상화 II, p. 135.



〈그림 6〉 당하관용 대모 관자
- 名品圖錄, p. 57.

굽은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좌우로 뻗친 뿔에 둥근 무늬가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정조 때 당하관이었던 정일태(鄭日泰, 1754-1814)의 초상화에서는 무늬 없는 사모뿔을 볼 수 있다(그림 4)³³⁾. 이처럼 당상관과 당하관의 사모는 뿔에 무늬가 있고 없음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장릉 능헌관 중 초헌을 맡는 관찰사(정3품)는 문사각의 사모를 쓰고 아헌을 맡는 영월군수(종4품)나 중헌을 맡는 현령(종5품) 또는 찰방(종6품)은 모두 당하관이므로 단사각의 사모를 쓰도록 한다. 제집사 등으로 참여하는 참반(당하관) 역시 당하관의 사모를 사용한다.

한편 사모의 안에는 사모 받침 모자로 탕건을 사용하였다.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후단령본 초상화³⁴⁾에서 사모 안에 쓴 탕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탕건 안에는 이마에 두른 망건이 있다. 망건의 밑단인 선단에는 관자(貫子)를 좌우에 달아 당줄을 걸어 조였다. 1품은 '환옥(還玉)'이라고 하는, 조각 없는 옥관자[無刻玉貫子]를 사용하였다. 정2품은 '환금(還金)'이라고 하는, 조각 없는 금관자[無刻金貫子]를 사용하였다. 종2품은 조각을 한 금관자[有刻金貫子]를 달고 정3품은 조각을 한 옥관자[有刻玉貫子](그림 5)를, 그리고 그 이하 관원과 서민은 대모(玳瑁)나 오각(鳥角) 관자(그림 6)를 사용하였다.³⁵⁾

따라서 장릉 한식제에서는 초헌관 관찰사(정3품)는 망건에 유각옥관자를 사용하고 탕건과 문사각 사모를 사용한다. 그 외에 아헌관 영월군수(중4품), 중헌관 현령(중5품)이나 찰방(중6품), 당하관 참반은 대모나 오각 관자를 단 망건을 두르고 탕건에 단사각 사모를 사용한다.

(2) 흑단령

장릉 헌관이 착용한 제복이란 당시의 관리들이 착용하였던 상복(常服)인 흑단령이다. <그림 7>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매수(1731-1818)의 1792년 흑단령본 초상화이다.

조선 전기의 흑단령은 아청색이었으나 17세기 후기 이후 점차 짙은 녹색으로 변화되었는데 『속대전』에는 현록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옷은 대소조의(大小朝儀)에 착용하는 옷으로, 당상관은 사(紗)나 단(緞)으로 만들고 당하관은 저(紵)나 견(絹)으로 만들었다. 사나 저는 여름용 옷감이고 단과 견은 겨울철 옷감이다.³⁶⁾ 당상관용 흑단령은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운문(雲紋)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당하관은 무늬 없는 옷감을 사용하였다. 이는 15세기 세종 때 흑단령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진 제도였다.

한편 흑단령의 안감[內供]은 남색 직령으로 만들어 고정시킨 것이다. 17세기 초까지도 답호가 받침옷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직령으로 교체되면서 겹감인 단령과 몇 뭉씩 고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흑단령 형태는 넓은 등근 깃과 넓어진 소매, 그리고 뒷길 좌우에 단추로 고정된 무(武)가 특징이다. 이익정(李益正, 1699-1782)의 묘에서 출토된 운문단 단령 유물<그림 8>³⁷⁾의 실측도³⁸⁾를 참고하여 제작할 수 있다. 화장은 113cm이고 길이는 127cm이다. 안감은 직령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시접은 단령 쪽을 향하도록 제작되었다. 단령의 좌우 옆선에 달린 무는 뒷길로 접혀 넘어갔는데 무 위쪽의 삼각형 부분에는 한지를 넣어 그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뒷길 쪽 무 상단에 단추를 달고 뒷길 좌우에 암단추를 달아 무를 고정시킨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장릉 한식제의 능 초헌관은 현록색 운문단 흑단령(남색 운문단 안감)을 착용하고 아헌관과 중헌관은 무늬없는 현록색 주(紬) 흑단령(남색 주 안감)을 착용한다. 옷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제작하며 소매도 손을 충분히 가릴 수 있도록 길게 제작한다. 양옆의 무는 앞무와 뒷무의 상단을 고정하되, 뒷무에 숫단추를 달아 뒷길에 달린 암단추에 걸어 고정시키는 양식으로 제작한다.



<그림 7> 서매수(1731-1818) 초상화
- 조선시대의 초상화 II, p. 135.



<그림 8> 이익정(1699-1782) 묘 흑단령
- 名選 中, p. 69.

○ 흉배

후단령에는 품계에 따른 흉배를 부착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는 조선 후기 영조대의 흉배제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문관 당상관은 운학(雲鶴) 흉배를, 당하관은 백학흉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무신 당상3품 이상의 흉배는 『대전(大典)』과 같고(1·2품) 당하3품 이하의 무신 흉배는 대전 무신 당상(3품)과 같다³⁹⁾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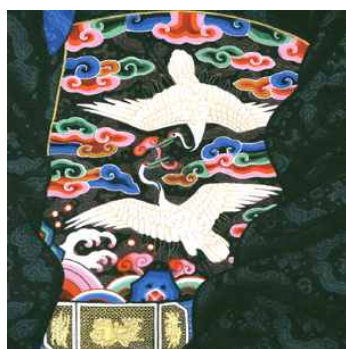
정조대의 흉배제도는 영조대의 제도와는 달랐다. 1794년의 기록인 『상서기문(象筮紀聞)』에는 문관 당상 3품 이상은 쌍백학(雙白鶴), 당하 3품 이하는 독학(獨鶴) 흉배를 사용한다⁴⁰⁾는 기록이 보인다. 『일성록(日省錄)』에도 정조 19년(1795)에 당상관에게 쌍학흉배를, 당하관에게 단학흉배를 하사하였다⁴¹⁾는 기록이 보인다. 서매수(1731-1818)의 초상화에서 영지를 물고 있는 정조 때의 쌍학흉배<그림 9>를 확인할 수 있다. 정조대 후기 당상관과 당하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의 구조로 정착되면서 학의 숫자가 당상, 당하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쌍학흉배와 단학흉배에서 학이 입에 모란이나 영지를 물고 있는 것도 정조대 이후의 특징이다.

한편 무관들의 경우, 영조 때는 사자흉배와 호흉배가 사용되었으나 정조대에는 사자흉배와 함께 표흉배가 사용되었다. 표흉배는 쌍호흉배, 단호흉배라는 것으로 정착하였다.⁴²⁾ 1784년 이주국(李柱國, 1721-1798) 초상화에서 표범무늬의 쌍호흉배<그림 11>⁴³⁾

가 처음 확인된다. 현관으로 당상 무관도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당상 무관이라면 쌍호흉배를 사용하고 당하 무관이라면 단호흉배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흉배의 크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고증을 위해서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다. 연대가 확실한 18세기 흉배 유물은 그리 많지 않은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2점이 전부이다. 두 점 모두 18세기 전기의 것으로 탐릉군(1636-1731) 묘 운학흉배는 32X37cm⁴⁴⁾이고 밀창군 묘의 운학흉배는 31.3X33.5cm⁴⁵⁾이다. 흉배는 후대로 가면서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 흉배보다는 약간 적을 가능성이 크다. 학의 입에 모란이 물려 있는 소수박물관의 단학흉배 크기는 26.7X27.5cm이다. 따라서 정조대의 흉배는 대략 한 변의 길이가 30cm가 넘지 않도록 제작하되,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를 약간 길게 제작한다.

한편 흉배는 가슴과 등에 부착하는데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稷, 1677-1746) 묘에서 출토된 단령의 경우, 앞길에는 깃에서 2cm 내려 달았고 뒷길에는 고대로부터 6cm를 내려 달았다. 이를 참조하여 정조대 후단령에 흉배를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장릉 한식제 현관의 흉배는 관찰사(정3품)의 경우, 문관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쌍학흉배를 달도록 하고 영월군수(종4품)나 현령(종5품), 찰방(종6품)은 단학흉배나 단호흉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9> 쌍학흉배
- 조선시대의 초상화 II, p. 135.



<그림 10> 단학흉배
- 소수박물관 소장, 연구자 촬영



<그림 11> 쌍호흉배
- 역사인물초상화대전, p. 415.

○ 단령 받침옷 창의

흑단령 안에는 받침옷으로 창의(擘衣)를 입었다. 창 의는 '대창의(大擘衣)'⁴⁶⁾라고 하는 옷으로, 교령(交領)에 소매가 넓고[廣袖] 옆선에 큰 삼각무가 있으며 등 솔기에 허리 아래로 긴 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덕원(1634-1704) 묘의 창의처럼 간혹 짧은 옆트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⁴⁷⁾ 창의는 사대부의 편복(便服)⁴⁸⁾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평안감사향연도》에 보이는 <그림 12>⁴⁹⁾처럼, 간편한 상복(上服) 또는 외출복으로 착용되었다. 또 단령 외에 도포의 받침옷으로도 사용되었다. 김여온(1665) 묘와 최숙(1698) 묘, 의원군 이혁(1699-1722) 묘의 습의(襲衣) 일습에서 단령 받침 옷으로 창의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대의 이익정(1699-1782)의 묘에서 출토된 창 의 실측도<그림 13>⁵⁰⁾에 의하면 길이가 132cm, 화장이 116cm이며 소매가 넓고 허리 아래로 길게 트인 뒤트임이 있다. 이 유물을 토대로 흑단령보다는 작은

치수로 제작하여 흑단령 안에 받쳐 입을 창의를 재 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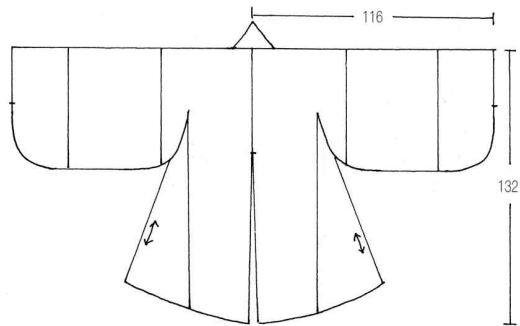
(3) 품대

품대는 관리들의 품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속품 이었다. 품계에 따라 띠돈[帶錢]과 띠돈을 둘러싼 금속 테의 재료가 달랐다. 『경국대전』에 1품이 서대(犀帶), 정2품이 삽금대(鍍金帶), 중2품이 소금대(素金帶), 정3품이 삽은대(鍍銀帶), 중3품부터 4품까지는 소은대(素銀帶), 5품 이하 9품까지 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정조 때의 품대 바탕은 당대의 초상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품대의 형태는 원형을 이루며 남색 비단으로 썼다. 이를 청정(靑鞞, 청색 띠바탕)이라고 하는데 청정 위에는 가로 방향의 금선을 5줄 그렸다. 가운데 3줄을 그리고 상하 가장자리에 각각 1줄씩



<그림 12> 창의 착용 모습
- 朝鮮時代 風俗畫, p. 44.



<그림 13> 이익정(1699-1786) 묘 창의 뒷면 실측도
- 韓國服飾, 19, p. 141.



<그림 14> 삽은대(정3품)
-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림 15> 흑각대(5품 이하)
-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그렸다. 그리고 띠 바탕에는 20개의 띠돈을 장식하는데 앞 중앙에는 삼태(三台), 삼태의 좌우에는 남두육성(南斗六星)을 부착하고 양쪽 옆의 좌보(左輔)와 우필(右弼), 타미[撻尾], 보필과 타미 사이에 1쌍의 화형(花形)의 금정(金釘), 뒤쪽에 방형의 북두칠성(北斗七星) 띠돈을 장식하였다.⁵¹⁾

장릉 한식제의 초헌관 관찰사(정3품)가 참여하는 경우는 조각한 띠돈에 은테를 두른 삼은대(그림 14)를 사용하고, 종3품 이하 4품의 관원이 참여한다면 조각 없는 띠돈에 은테를 두른 소은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 외 영월 군수나 현령, 찰방은 모두 5품 이하의 관원이므로 흑각대(그림 15)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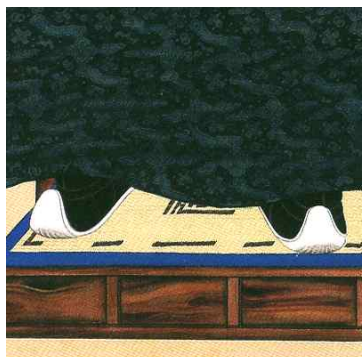
(4) 흑화

흑화는 '흑화자(黑靴子)' 또는 '목화(木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림 16>⁵²⁾은 정조대의 서매수(1731-

1818)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흑화이다. 국말 흑화는 우단(羽緞) 등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지만 18세기에는 대체로 가죽으로 되었다.

1671년의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에는 흑서피화(黑黍皮靴)와 그 안에 신을 백양모정(白羊毛精) 재료가 열거되어 있다. 겹은 흑서피를 사용하고 안감은 남색 삼승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깃[衿]에는 청서피(靑黍皮)를, 가장자리 선장식[回伊]은 자사피(紫斜皮)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내창(內昌), 외창(外昌), 배포(襜布), 생포(生布), 어교(魚膠), 백사(白絲), 진말(眞末), 분(粉) 등이 사용되었다.⁵³⁾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영(金瑩, 1789-1868)의 흑화 유물(그림 17)이 앞에 언급된 흑화 재료 기록과 유사하므로 장릉 한식제 헌관들의 흑화 제작에 참고할 만하다.

그 외에 흑화에 사용하였던 버선 정(精)과 비을



<그림 16> 서매수(1731-1818) 초상화의 흑화
- 조선시대 초상화 II, p. 135.



<그림 17> 흑화 유물(소수박물관 소장)
- 연구자 촬영



<그림 18> 성균관 유생
-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p. 66.



<그림 19> 영조의 청사상의(도포)
- 문화재대관 2, p. 109.

때 흑화 위에 신을 투혜(套鞋)를 갖출 필요가 있다.⁵⁴⁾

2) 유생 집사의 유생복

『장릉사보』에 따르면 장릉 한식제의 집사는 향교 창절사의 재유(齋儒)가 담당하였다. 영월의 창절사는 장릉 밖 2리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 및 김시습, 남효온, 엄홍도를 모신 향교였다.⁵⁵⁾

창절사 향교의 유생은 청금복, 즉 학생복을 착용하였다. 정조 때의 학생복은 청색 도포를 말한다. 18세기 청색은 거의 옥색에 가까운 열은 청색이었다.⁵⁶⁾ <그림 18>⁵⁷⁾에서 볼 수 있듯이, 1817년 성균관 대성전에서 왕세자가 작헌례를 행할 때 집사로 참여한 유생들도 검은 유건에 옥색 도포, 청색 계통의 세조대, 행진, 흑화를 착용하였다.

유건은 검은 색의 삼베나 모시 등으로 만들었는데 우선 머리 둘레에 맞는 크기로 원통으로 만들고 위를 막는다. 양 옆을 접어 위쪽의 양쪽으로 뾰족하게 귀를 만들었다. 끈을 달아 턱 아래에 묶었다.

도포는 조선 후기 유생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대표적인 옷[上服]이다. 도포의 형태적인 특징은 이중 뒷자락[後垂]에 있다. 길 뒷자락을 들어 올리면 좌우 앞길에 연결되어 뒤로 넘어온 안자락이 있다. 따라서 안자락에는 뒷중심에 트임이 있다. 도포의 구체적인 형태는 파계사 소장의 1740년 영조 도포[靑紗上衣]<그림 19>⁵⁸⁾나 이익정(1699~1782) 묘에서 출토된 도포 유물⁵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도포의 반침옷으로는 대창의나 중치막 등을 착용

하였으며 허리에는 흑색이나 청색 등의 세조대를 둘렀다. 그리고 종아리에 행진을 치고 흑화를 신었다.

3) 수복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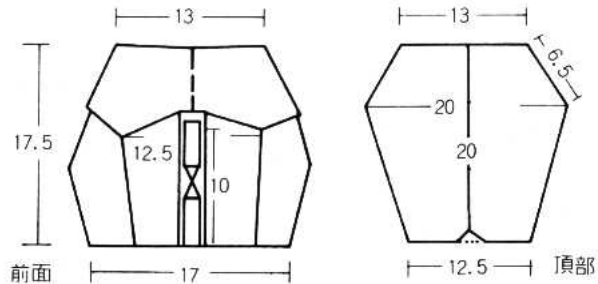
『장릉사보』를 통하여 장릉 소속의 수복(守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복은 묘(廟)·사(祀)·능(陵)·원(遠)·서원(書院) 등을 지키던 일을 맡아 보던 하례(下隸)이다.⁶⁰⁾ 제사 준비와 청소, 진설 등을 하였으며 제사 중에는 재관들의 좌우에 배치되었다.

윤기(尹愷)의 『반중잡영(泮中雜詠)』에 의하면 성균관에도 수복이 있었는데 ‘흑관(黑冠)에 홍의(紅衣)를 입었다’⁶¹⁾라는 기록과 함께, ‘전자건(典字巾)과 진홍단령(眞紅團領)을 입었다’⁶²⁾고 하였다. 『태학지(太學志)』에도 “수복은 단령을 입는다”⁶³⁾는 내용이 보인다. 1817년 성균관 대성전에서 치러진 왕세자 작헌의에 참여한 수복의 모습은 <그림 20>과 같다.

따라서 수복은 ‘전자건’이라고도 하는 흑색 관모를 쓰고 ‘홍의’라고 하는 진홍색 단령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건은 <그림 21>의 별감용 자건(紫巾)처럼, 뒤가 뾰족하게 올라가면서 앞은 평평한 평정건(平頂巾)⁶⁴⁾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단령의 형태는 현관의 흑단령과 같다. 수복용 단령의 안감은 남색이며 허리에는 청색 계통의 광다회(廣多繪)를 둘렀다. 종아리에는 행진을 치고 운혜(雲鞋)를 신었다. 1671년 세자(숙종)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열거되어 있는 운혜 재료⁶⁵⁾를 보면 운혜는 청색 무명으로 만든 신발이다. 홍색 무명으로 장식을 하고 흰색 테를 둘렀으며 청색 무명 끈을 달아 발등에 묶는, 운두가



<그림 20> 성균관 소속 수복
-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p. 66.



<그림 21> 평정건
- 朝鮮時代 宮中服飾, p. 17.

〈표 2〉 정조대 장릉 한식제 재관의 제복 구성

품목	齊官	獻官1	獻官2	諸執事	守僕
		정3품 초헌관	종4·종5·종6품 아헌·종헌	유생 행례	잡직 능관리
관모	紋紗角 紗帽	單紗角 紗帽	儒巾	典字巾	
받침모자	탕건	탕건	-	-	
망건 관자	有刻玉貫子	玳瑁貫子	玳瑁貫子	玳瑁貫子	
외의	현록색 雲紋緞 흑단령 雙鶴胸背	현록색 紬 흑단령 [문관] 單鶴胸背 [무관] 單虎胸背	道袍	眞紅團領	
	대장의	대장의	대장의 · 증치막	-	
받침옷	대장의	대장의	대장의 · 증치막	-	
허리띠	鍛銀帶	黑角帶	細條帶(청색)	廣多繪(청색)	
신발	黑靴	黑靴	黑靴	雲鞋	
공통품목	①저고리 ②바지 ③버선 ④행견				

낮은 신발로 짐작된다.

이상으로 장릉의 한식제에 참여하는 헌관과 유생 집사, 수복의 복식을 1791년 정조대에 시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 복식 구성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단종 제향의 체제가 완성된 1790년대 정조 때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재관의 복식을 고증함으로써, 단종문화제의 일환으로 거행되고 있는 단종 제향의 복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종 제향은 단종처럼 영녕전(永寧殿)에 위패가 모셔진 왕(왕후)는 한식(寒食)에만 제사를 지낸다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의하여 한식에만 시행되어 왔다. 더욱이 1791년에 단종을 위해 충절과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配食壇)이 지어지면서 다른 왕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릉만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정단(正壇)인 충신단(忠臣壇)에 모셔진 32인과 별단(別壇)에 모셔진 236인에 대하여 매년 장릉 한식제를 지낼 때 함께 제향을 지내고 있다.

『춘관통고(春官通考)』 규정에는 왕릉 제향에 헌관, 전사관(대축 겸함), 능사, 찬자, 알자, 찬인 등이 재관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장릉의 한식제에는

강원도 관찰사와 영월군수, 현령과 찰방, 대축(전사관 겸함) 등의 참반(당하관) 집사, 그리고 배식단의 단사(壇司), 축사(祝史), 재랑(齋郎) 등의 충절사의 유생 집사, 능에서의 잡역을 담당하는 수복(守僕)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1790년대를 고증 시점으로 하여, 강원도 관찰사(정3품), 영월군수(종4품), 현령(종5품), 찰방(종6품), 대축(전사관) 등의 참반(參班, 당하관) 집사, 향교 유생 집사, 그 외의 수복방 소속의 수복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그들이 착용하는 당상·당하관 상복(常服), 제집사의 유생복, 수복의 복식을 살펴보았다.

장릉의 능제와 배식단 제사에 참여하는 당상·당하관의 경우, 『춘관통고(春官通考)』의 규정에 따라, 상복(常服)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장릉의 초헌관 관찰사(정3품)는 유각(有刻) 옥관자를 단 망건에 탕건을 쓰고, 그 위에 문사각(紋紗角) 사모를 쓴다. 쌍학홍배를 단 현록색 운문단 흑단령(남색 운문단 내공)을 착용하는데 홍배의 크기는 대략 한 변의 길이가 25-30cm 정도로 재현한다. 허리에 삼은대(鍛銀帶)를 띠고 청색 깃[衿] 장식이 있는 흑피화와 흑피화에 사용하였던 버선 정(精), 비올 때 흑화 위에 신는 투혜(套鞋) 등을 갖춘다. 단령의 받침옷으로는 옥색 대장의(大氅衣)를 입는다.

아헌관 영월군수(종4품)와 종헌관 현령(종5품), 찰방(종6품), 그리고 참반(參班) 집사는 모두 당하관에 해당되므로 대모(玳瑁)나 오각(烏角) 관자를 단 망건에, 탕건, 단사각(單紗角) 사모를 사용한다. 흑단

령은 무늬 없는 현록색 주(紬) 흑단령(남색 주 내공)을 착용한다. 흉배는 문과 출신이면 단학흉배, 무과 출신이면 단호흉배를 사용한다. 품대는 종3품 이하 4품의 관원인 경우, 소은대(素銀帶)를 사용하고 5품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한다. 흑화 이하는 당상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향교 창절사(彰節祠)의 유생 집사들은 청금복, 즉 유건과 옥색 도포, 청색 세조대, 행진, 흑화를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능에 소속되어 제사 준비와 청소, 진설 등을 하였던 수복은 『반중잡영(泮中雜詠)』의 기록에 근거하여 전자건(典字巾, 黑冠, 平頂巾)을 쓰고 홍의(紅衣)라고 하였던 진홍색 단령을 입고 허리에 청색 계통의 광다회(廣多繪)를 두른다. 그리고 행진(行纏)과 운혜(雲鞋)를 신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가 영월 단종 제향의 재관 복식에 적극 활용되어 영월 단종 제향이 국내 최고의 기품 있는 전통역사의 축전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전통 의례들이 고증되고 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전통문화 관련 행사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자긍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원도 영월군 (2010), *장릉 단종제례 조사연구 보고서*, pp. 1-126.
- 2) 재관은 헌관[祭官]과 제집사(諸執事) 등, 제사에 참여하는 행례자를 의미한다.
- 3) 이현진 (2008), *조선 후기 종묘 전례 연구*, 서울: 일지사, pp. 284-320.
- 4) 李肯翬, *燃藜室記述*, 卷4, 端宗朝故事本末.
- 5) *宣祖實錄*, 卷15, 宣祖 14년 1월 辛未.
- 6) *宣祖實錄*, 卷164, 宣祖 36년 7월 戊寅.
- 7) *光海君日記*, 卷31, 光海君 2년 7월 戊辰.
- 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藏書閣 名品選*,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p. 176.
- 9) 문헌에 따라 별단에 배식한 인물의 수가 다르다. *莊陵配食錄*(奎 5489), 卷上, 正壇三十二人: *莊陵配食錄*(奎 5489), 卷下, 別壇二百三十六人. *莊陵史補*(奎 3684), 卷4, 類編1 兩陵崇奉事實 「[正壇配食忠臣三十二人]」·「[別壇死事諸臣一百八十二人]」·「[北別壇四十四人]」·「[南別壇六人]」, *正祖實錄*, 卷32, 正祖 15年 2月 丙寅.
- 10) 자료검색일 2012. 5. 12, <http://cafe.daum.net/01035073846/ZYqH/985> 현재 영월군에서 단종 제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흑단령을 착용한 헌관들이 홀을 들고 있는 등, 아직도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 11) 김문식 (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藏書閣*, 21, p. 89.
- 12)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
- 13)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時日.
- 14) 후릉이란 정종과 정안왕후의 능을 말한다.
- 15) *春官通考*, 卷17, 吉禮 陵寢 厚陵 辨祀 時日.
- 16) *春官通考*, 卷17, 吉禮 陵寢 健元陵.
- 17) *春官通考*, 卷23, 吉禮 陵寢 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
- 18) 이때의 헌관은 제관·정초삼의 제복을 착용하지 않으므로 홀을 띠에 꽂는, 이 과정은 생략된다. 이후 문장 중에서도 홀을 언급하는 과정을 생략된다.
- 19) *莊陵史補*(奎 3684), 卷4, 類編1 兩陵崇奉事實.
- 20) *春官通考*, 卷17, 吉禮 陵寢.
- 21) 오희복 (1992), *관료기구 및 관직명 편람*, 서울: 여강출판사, p. 427. 참상은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로부터 종6품인 선무랑(宣務郎) 품계까지의 벼슬아치를 말하며 참위는 정7품인 무공랑(務功郎)으로부터 종9품인 장사랑(將仕郎)까지의 품계에 있는 벼슬아치를 말한다.
- 22) *Ibid.*, p. 426. 능사는 참봉이 하는데 참봉은 능(陵)이나 원(園)을 관리하는 종9품 벼슬이다.
- 23) *正祖實錄*, 卷18, 正祖 8年 11月 己未.
- 24) *莊陵史補*(奎 3684), 卷4, 類編1 兩陵崇奉事實.
- 25) 자료검색일 2012. 2. 16, <http://sillok.history.go.kr> '수복'은 조선 때 묘(廟)·사(祀)·능(陵)·원(遠)·서원(書院) 등을 지키던 일을 맡아 보던 하례(下隸)이다.
- 26) *莊陵史補*(奎 3684), 卷首, 圖 莊陵圖.
- 27) *春官通考*, 卷17, 莊陵 祭服[同健元陵].
- 28) *春官通考*, 卷17, 健元陵 齊服.
- 29) *春官通考*, 卷17, 健元陵 時日.
- 30) 『莊陵史補』에는 수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수령은 군수와 현령의 준말이므로, 영월군수와 현령으로 구분하였다. 현령은 종5품 외관직에 해당한다.
- 31) *續大典*, 卷3, 17.
- 32) 국립중앙박물관 (2008), *조선시대 조상화 II*,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 135.
- 33) *Ibid.*, p. 189.
- 34) 국립중앙박물관 (2011), *조상화의 비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 141.
- 35) *松濶貳錄*, 卷服着, 002b.
- 36) *續大典*, 卷3, 17.
- 37)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名選 中*,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p. 69.
- 38)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全州李氏 益炬(1699~1782) 유물연구, *韓國服飾*, 19, p. 132.
- 39) *英祖實錄*, 卷61, 英祖 21年 6月 丁酉.
- 40) 小田幾五郎 (2005), *象胥紀聞*, 栗田英二 역, 서울: 이회, p. 151.
- 41) *日省錄*, 正祖 19年 閏2月 16日.
- 42) 이은주 (2008),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 *服飾*, 58(5), pp. 102-117.

- 43) 이강철 외 (2003),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서울: 현암사, p. 415.
- 44) 고부자 (2002),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서울: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p. 4.
- 45) 박성실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韓國服飾*, 22, p. 123.
- 4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4, 服食裁量辨證說.
- 47) 윤미화 (1982), *褙衣類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pp. 96-97.
- 48)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卷43, 儀章類 巾服攷 褙衣.
- 49)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畫*,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 46.
- 50) 고부자 (2001), *op. cit.*, p. 141.
- 51) 이은주 (2011),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10), pp. 135-150.
- 52) 국립중앙박물관 (2008), *op. cit.*, p. 135.
- 53) 肅宗嘉禮都監儀軌(奎 13078), 175b.
- 54)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 서울: 민속원, pp. 170-175.
- 55) 莊陵史補(奎 3684), 卷4, 類編1 兩陵崇奉事實
- 56) 李裕元, *林下筆記*, 卷15, 文獻指掌編 白衣之禁.
- 5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p. 66.
- 58)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㉔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p. 109.
- 59) 고부자 (2001), *op. cit.*, p. 135.
- 60) 자료검색일 2012. 2. 16, <http://silok.history.go.kr>
- 61) 尹愔 (1999), *朝鮮朝成均館의 校園과 太學生의 生活像*, 李敏弘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104.
- 62) *Ibid.*, p. 82., '守僕六人典字巾 眞紅團領色鮮新'.
- 63) *太學志* 雜識, '入學時 守僕團領典設司掌鋪陳'.
- 64)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서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66.
- 65) 肅宗嘉禮都監儀軌(奎 13078), 175b.